

신도시·교통호재 ‘양날개’... 고양시 집값 1년새 2배 꺾춤

고양 집값 상승률 전국 최상위권 덕양구, 일산 등 GTX 수혜 기대 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 ‘신고가’

경기도 고양시 집값이 수도권광역철도노선(GTX)-A노선 호재로 전국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다. 특히 GTX-A 노선이 지나는 일산서구의 킨텍스역과 덕양구 창릉역 일대 아파트 가격은 전용면적 84㎡가 10억원을 훌쩍 넘기며 1년새 2배 가까이 올랐다.

고양시는 창릉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이후 최근 GTX-A, 고양선 연장 등 교통호재에 힘입어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것.

한국부동산원 월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고양시는 1월에만 3.85%의 가격상승률을 기록하며 전국 최상위권의 수치를 나타냈다.

지난해 말 김포와 파주가 연이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수요가 유입된 데다 GTX-A 창릉역 신설과 고양~서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 /정연우 기자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 일대 전경. /뉴스시

은평 간 도시철도 신규노선인 고양선 신설 계획이 확정되면서 일산동구, 일산서구 외에 덕양구의 아파트 가격 상승까지 겹치며 고양 전체 아파트 가격이 일제히 올랐다.

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 입주를 시작한 일산서구 대화동 ‘킨텍스 꿈에그린(전용면적 84㎡)’은 지난해 12월 14억원에 팔렸다.

이 면적형은 지난해 10월 11억원에 거래된 바 있다. ‘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전용면적 60㎡)’는 지난해 5억8000만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는 “창릉 신도시 발표 이후 일산 집값은 덕양구에 비해 잠시 주춤했지만 최근 GTX-A노선 발표가 더해지면 1년새 집값이 2배 가까이 올랐다”고 전했다.

3기 신도시인 창릉지구가 있는 덕양구역시 전용면적 84㎡가 10억원을 넘겼다. 도내동 ‘원흥동일스위트(전용면적 85㎡)’는 지난해 11억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 면적형은 1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8억원대에 거래된 바 있다.

중개업자에 따르면 덕양구 향동 ‘DMC중흥S클래스더센트럴(전용면적 60㎡)’의 최근 1개월 평균 시세는 7억원이

다. 지난해 평균 시세보다 3억원이 올랐다. 근처에 있는 ‘DMC호반베르디움더포레(전용면적 71㎡)’는 지난해 9억원에 팔렸다. 3개월 전 보다 1억5000만원이 오른 가격이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부동산114가 조사한 지난해 29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을 살펴보면 경기·인천 지역 매매가격은 GTX의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며 전주 대비 0.18% 올랐다. 지역별로는 ▲고양(0.30%) ▲의왕(0.30%) ▲의정부(0.29%) ▲파주(0.28%) ▲용인(0.27%) ▲남양주(0.26%) ▲수원(0.22%) ▲화성(0.19%) 순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고양시는 GTX 개발 외에도 유동성 증가 요인과 겹쳐 당분간 집값 상승은 계속될 전망이다”며 “가격이 떨어질 요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올 한해 동안 하락 없이 완만한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서학개미, 지난주 테슬라·TSMC·애플 담았다

해외주식 Click

개미(개인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직구(직접구매)가 일상화됐다. ‘동학개미’에 이어 ‘서학개미’란 신조어가 생긴 이유다. 메트로신문이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매매 현황과 시세를 살펴보는 ‘해외주식 클릭(Click)’ 코너를 만들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

1월 4주차 테슬라 1791억 순매수 TSMC 1222억, 애플 845억 順

국내 투자자들이 지난주(1월25일~31일 기준)에 가장 많이 순매수한 해외주식은 테슬라(TESLA MOTORS)였다. 2위는 대만의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 TSMC였다. 4주차 상위 10개사에는 주로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반도체,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 등이 자리했다.

2일 한국에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은 1월 4주차에 테슬라를 1억6025만달러

(1월4주차 해외주식 ‘개인 순매수액’ 상위 10개 종목)

(단위 : 달러)

순위	종목명	순매수 금액
1	테슬라	1억6025만
2	TSMC ADR RE	1억 928만
3	애플	7554만
4	아크이노베이션 ETF	5782만
5	이항홀딩스	5265만
6	ACTC(ARCLIGHT CLEAN TRANSITION CORP)	4088만
7	NANO DIMENSION LTD	3679만
8	GEVO INC.	3522만
9	CCIV(CHURCHILL CAPITAL CORP IV)	3312만
10	제너럴모터스	2905만

(약 1791억원)어치를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테슬라가 글로벌 전기차 수요 급증에 따른 실적 개선으로 설립 이래 최초로 연간 흑자를 기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월 3주차에 이어 1위를 고수하고 있는 테슬라의 1일(현지시간) 주가는 종가 기준으로 전일 대비 5.83% 상승한 839.81달러를 기록했다.

이어 순매수 2위를 차지한 종목은 대

만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인 TSMC 주식 예탁증서(ADR)로 국내 투자자들의 순매수 규모는 1억928만달러(약 1222억원)였다. TSMC는 대만의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다. 1월 3주차 3위에서 한 계단 상승했다. TSMC는 1일(현지시간) 전일보다 4.23% 오른 126.66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3위는 테슬라와 함께 ‘서학개미’들의 대표적 선호주인 애플이었다. 개인

의 순매수 규모는 7554만달러(약 845억원)였다. 애플은 1월 3주차에는 9위에 머물렀지만 다시 3위로 안착했다. 앞서 애플은 지난해 4분기 매출이 1114억달러로 시장 전망치(1000억달러)를 웃돈 실적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1일 애플은 전일 대비 1.65% 뚝 134.14달러로 장을 마쳤다.

순매수 규모 4위는 성장주 상장지수펀드(ETF)인 아크이노베이션 ETF(ARKK ETF)가 차지했다. 개인의 순매수 규모는 5782만달러(646억원)로 전주 6위에서 두 계단 올랐다. 해당 ETF는 미국 액티브ETF 선두주자인 아크인베스트가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업의 1일 주가는 전일 대비 3.77% 상승한 142.62달러에 종료했다.

5위는 중국의 대표 항공드론 기업인 이항홀딩스(EH)였다. 개인은 5265만달러(약 588억원) 규모를 순매수하면서 직전주 8위에서 5위로 뛰었다. 이항홀딩스의 1일 주가는 전장보다 무려 22.81% 급등한 81.50달러를 기록했다.

/염재인 기자 yji208@

하나금융투자

BBIG K-뉴딜 연동 뉴딜 ETN 신규 상장

하나금융투자가 미래 성장 주도 산업의 핵심 지수로 알려진 BBIG K-뉴딜 지수에 투자하는 ‘하나 KRX BBIG K-뉴딜 ETN’을 유가증권 시장에 신규 상장했다.

‘하나 KRX BBIG K-뉴딜 ETN’은 K-뉴딜에 투자하는 업계 최초의 상장지수증권(ETN·Exchange Traded Note)이다. 발행사인 하나금융투자가 직접 유동성을 공급(LP)하며, KRX BBIG K-뉴딜 지수에 연동해 수익을 지급한다.

하나금융투자가 선보이는 신규 ETN의 기초가 되는 BBIG K-뉴딜 지수는 2차전지와 바이오, 인터넷, 게임 4개 산업군에 속한 대표기업 총 12개로 구성돼 있다. 시가총액의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편입종목 비중을 모두 동일하게 가지는 동등가중방식이 적용되며, 매년 2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정기변경이 이뤄진다. 한국 주식시장을 선도하는 대표 성장주들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돼 있다. /박미경 기자 miyoung96@

SK건설, 블라인드 펀드 활용 친환경 주거문화 선도

DS네트웍스·삼성증권 등과 MOU 1~2인 가구 친환경자재 적극활용

SK건설이 주거개발을 위해 모집한 블라인드 펀드를 활용해 친환경 중소형 주거상품을 새롭게 선보인다.

SK건설은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지플랜트(G.plant) 사옥에서 DS네트웍스, 삼성증권, DS네트웍스 자산운용 등과 함께 주거개발 블라인드 펀드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안재현 SK건설 사장, 박용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부동산인프라 본부장, 김영철 DS네트웍스 대표이사,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이사, 박원준 DS네트웍스 자산운용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사업 초기부터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는 ‘오토(OTO: One Team Operation)’ 체제를 강화하며, 새로운 친환경 주거상품을 개발하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SK건설은 투자 프로젝트 전반을 기획·관리하는 총괄업무를 맡고, DS네트

웍스는 풍부한 개발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노하우 및 관리시스템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DS네트웍스자산운용은 펀드 자금 운용을, 삼성증권은 투자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금융자문을 맡을 예정이다.

SK건설은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건축주택사업부문을 에코스페이스부문으로 조직명을 바꾸고, 크리에이티브스페이스그룹을 신설했다. 에코스페이스부문은 친환경 요소에 공간 효율을 극대화하고 다양한 리빙스타일을 반영

해 주거상품과 지식산업센터 SK V1에 접목시킬 계획이다.

특히, 공간을 재해석해 새로운 공간으로 가치를 창출하고, 3R(Reduce·Reuse·Recycling) 중심의 지속가능한 건축설계를 적용할 방침이다. SK건설은 새로운 개념의 중소형 친환경 주거상품 브랜드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번 블라인드 펀드를 통해 최초 적용할 예정이다. 1~2인 가구에 최적화된 평면과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건축자재 등을 적극 활용하며 입주민 전용 라운지, 피트니스, 공용 세탁실 등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공공커뮤니티시설도 함께 조성될 계획이다. /정연우 기자

DB금융투자

DLB 등 3종 판매

DB금융투자는 5일까지 기타과생결합사채(DLB) 등 상품 3종을 판매한다고 2일 밝혔다.

3개월 만기 ‘마이 퍼스트 DB DLB 제87회’는 최소 연 2.5%가 지급되는 신규 고객 대상 원금지급형 상품이다. 양도성에금증서(CD) 91일물 최종호가 수익률의 만기평가가격이 10% 이상이면 연 2.51%의 수익이 지급된다. 10% 미만인 경우에도 연 2.5%의 수익이 지급된다. /염재인 기자